

## 네 멋대로 써라

안수지\*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나는 어릴 때 글 쓰는 것을 좋아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았고, 논설문을 써서 학교 문집에 실기도 했다. 아주 어린 나이에는 시나 동화를 끼적이기도 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학년이 높아지면서 나의 글쓰기는 정체 상태가 되었다. 나이에 맞는 깊이 있는 글을 쓰지 못한다는 두려움, 나는 자신 있게 썼는데 남이 인정해주지 않으니 나는 글을 잘 쓸 리 없다는 자조 등이 섞여서 글을 마음대로 쓰기가 힘들었다. 더욱이 글을 매우 잘 쓰는 사람 앞에서 는 팬한 열등감에 차마 ‘나는 어려서 글쓰기를 좋아했어’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한 후, 좋든 싫든 4년 동안 무수히 많은 리포트를 쓰며 지내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글을 다시 생활처럼 접하게 되면서, 몇 년을 쓰지 않았던 일기를 가끔 쓰기도 했고, 평소 상상했던 것을 창작물로 써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어릴 때는 글쓰기를 꼭 좋아했었다는 사실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동안 나는 ‘글을 잘 써야만 글쓰기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나는 비록 ‘글을 잘 쓴다’고는 자부할 수 없어도, ‘글쓰기를 좋아한다’고는 당당하게 말하고자 노력했다.

어떤 글을 쓸 때, 글의 종류에 따라 형식을 맞추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글 쓰는 일에 자신 없어한다. 쓸 말이 있어도 어떻게 문장을 이어나갈지 몰라서, 정해진 형식에 맞지 않게 쓸까봐

걱정한다. 만약 쉽사리 글이 써지지 않는다면, 이런저런 걱정은 버리고 일단은 ‘자기 멋대로’ 써보는 것이 어떨까. 꼭 글을 ‘잘’ 써야 한다는 부담감은 접어두고 말이다. 어떤 글이든 간에 써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틀이 잡힐 것이다. 소위 글 좀 쓴다는 주위의 누군가처럼, 모두가 인정하는 수려한 글솜씨가 아니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자신도 글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글쓰기에는 정답도 없고, 완벽한 글이란 존재하기 힘들다. 너무 ‘남들이 좋다는 이리이러한 형식에 맞춰서 잘 써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려 주눅이 들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써나가는 연습부터 해보면 좋을 것이다. 그 후에 글을 잘고 닦는 작업을 해도 늦지 않다. 처음부터 서평 쓰기가 힘들다면, 딱딱한 형식에 얹매이지 말고 동생에게 책을 소개하는 편지라도 한 통 써보면 글을 시작하기 더 쉽다. 나 또한, 영화를 보고 난 후, 항상 감상을 적어보는 습관을 통해 글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내 생각을 글로 풀어낼 수 있는 훈련이 되었다.

일단, 자신의 생각을 ‘자기 멋대로’ 편안하게 글로 썼다면, 그 이후에는 형식에 맞게 고쳐나가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처음 글을 쓴 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퇴고는 중요하다. 퇴고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일단 고칠 대상이 되는 글을 완성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것을 알면서도, 사실 나는 예전에 내가 쓴 글을 다시 읽는 것이 싫어서 종종 리포트 초고를 그대로 제출하곤 했다. 내가 읽어보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첨삭을 부탁할 수도 있었겠지만, 내가 쓴 글을 남들에게 보여주기가 부끄러웠다. 여전히 퇴고에 소홀할 때가 많지만, 내 글을 다시 읽는 것도, 남들에게 내 글을 보여주는 것도 예전보다는 편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제는 점점 퇴고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중요한 작업임을 알아가고 있다.

덧붙여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한 가지 있다. 학술적인 글이라면 퇴고할 때 맞춤법 및 문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간혹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책이나 논문 등에서 맞춤법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그 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나 자신도 아직 맞춤법과 문법에 완벽하게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

만, 학술적인 글을 쓸 때는 특히 주의하려고 노력한다. 또, 글을 쓰다 보면 매번 쓰는 단어만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유의어 사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나는 개인적으로 누가 읽어도 너무 어렵거나 지나치게 현학적인 글, 꾸밈만 그럴듯하고 알맹이가 없는 글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글들은 잘 쓴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정작 읽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자신의 생각을 쉽고 명료하게 드러내면서 재미도 있는 글은 읽기도 즐겁고, 얻는 것도 많다. 나 자신도 어떤 종류의 글을 쓰던 간에 재미있게 읽힐 수 있는 글을 쓰고 싶다.

나는 ‘글을 잘 써야 한다’는 마음을 버린 후, 역설적으로 더 편하게 글을 쓰게 되었다. 나의 글은 몇 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고칠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다. 하지만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내 진심을 담아 쓴 내 글을 부끄러워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좋은 글을 많이 읽고, 또 글을 많이 쓰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싶다. 논설문 쓰기를 좋아했던 어린 이의 마음 그대로, 나는 ‘글쓰기를 좋아한다’고 다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